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 사 안 수 미**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이 기 영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Ph. D. Ahn, Soo Mi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Emeritus Professor Lee, Ki-Young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Lee, Seung mie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actual time fathers spend in childcare has not increased much in spite of recent attention paid to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changes in the fathers' role. In this study, parenting time is measured by time spent in childcare, shared housework, and shared leisure. In this way,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rends in fathers' time spent with childre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was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en measuring childcare time as a primary activity, fathers' time spent in parenting averaged 17 minutes on

* 본 논문은 안수미의 2013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주저자, 교신저자: 안수미(soom@snu.ac.kr)

weekdays and 32 minutes on Sundays. This extended to 44 minutes on weekdays and 166 minutes on Sundays when including the secondary childcare time and the shared time with their children while doing housework or leisure.

Second, fathers'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childcare was higher for fathers who had shorter working hours, younger children, higher spouse average monthly income, and a college or higher education level. The variable that influenced fathers'participation in shared housework on weekdays was working hours. On Sundays, the variables were working hours,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the type of occupation. Fathers' participation in shared leisure was influenced by father's working hours, number of children,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type of occupation on weekdays. On Sundays, it was influenced by working hours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Key Words : 자녀양육시간(parenting time), 자녀양육참여(participation in parenting), 자녀돌보기(childcare), 가사공유(shared housework), 여가공유(shared leisure)

I. 서론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자녀양육의 주요 담당자인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왔으나, 1970년대에 심리학자 및 가족학자들이 인습적으로 고정화된 남성역할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것인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였고, 오늘날의 아버지 연구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계계승자, 가족부양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 근대적 아버지(modern father), 양성적 아버지(androgynous father), 양육하는 아버지(nurturant father, caring father)라는 이미지에 근거한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조선화,1997).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버지 연구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아버지역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 특히 여성의 취업과 핵가족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취업, 특히 영유아나 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의 공백, 가정기능의 약화,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즉 가정내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할 사람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함께할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역할공유가 절실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육아나 가사에 더욱 참여해서 가정내 지지 시스템 만들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 역시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양육 분담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저출산현상에 의한 자녀수 감소는 자녀양육시간의 감소를 예상하게 하지만, 실제 분석결과에 의

하면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집에 1-2명인 소수의 자녀를 위해 아낌없는 교육비와 자녀양육비를 지출하는 경향과 더불어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기 위하여 노동경력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식도 나타나고 있다(김은설·최혜선,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르며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더욱 더 강조되고 독려되고 있다. 현대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인식, 자녀들과의 많은 시간 공유 등 보다 적극적인 자녀양육에의 참여(Pleck, 1977 ; 허경옥, 1994a 재인용)가 강조되는 한편으로, 아버지 자신도 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바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ucet(2009)은 지난 10년동안 아버지에게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동반하여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돌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Jacobs와 Gerson(2004)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일과 관련된 다른 혜택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00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현재의 시간사용 방식을 바꾼다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생겨난 '바짓바람', '프랜디', '슈퍼대디' 등의 신조어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9년-2009년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곽인숙 외, 2013 재인용),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사회가 모두 아버지역할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임금노동시간이 많고 근로조건이 유연하지 않아 자녀양육시간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인가? 노동시간의 감소로 자유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자녀양육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여가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시간을 연구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는 자녀양육시간의 측면에서 다뤄질 때 배우자와의 노동분담(역할공유)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자녀양육시간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 집중되어져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시간과의 비교 중에 항상 폄하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구체적인 양육행동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양육태도, 훈육태도와 같은 심리영역에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내는 시간의 양을 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의 양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다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파악된다. 아버지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자녀양육의 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객관적 지표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녀양육시간이라는 객관적 척도를 이용하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양육시간을 구성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 사용을 어머니와의 노동분담 측면이 아닌 부모와 자녀간 상호관계 측면에서 인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의 다양성과 특성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녀양육시간의 정의와 측정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생활시간 중에서 자녀양육시간을 분류하여 사용해 왔는데 자녀양육시간에 포함되는 자녀양육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활동을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이라고 본다면 신체적 돌보기, 놀아주기, 학습지도 등에 보낸 시간이 자녀양육시간으로 측정되며, 자녀양육시간을 측정할 때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녀양육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자녀양육시간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조미환과 임정빈의 연구(1997)에서 자녀양육시간에는 신체적 돌보기, 등하교시키기, 숙제봐주기, 이야기나누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그림그리기, 놀이터에서 놀기, 야외나가기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이연숙과 동료들(2002)의 연구와 채로와 이기영(2004)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시간으로 자녀의 신체돌보기와 자녀학습지도 및 놀아주기에 보내는 시간을 자녀양육활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Larson, Gillman과 Richards(1997)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관리하는 것과 여가가 자주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Fedick, Pacholok과 Gauthier(2005)은 자녀양육시간(parental time)을 주행동으로 행해진 자녀돌보기 시간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행해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까지 포함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돌보기 외에 식사, 가사노동, 쇼핑, 자원봉사, 여가 활동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자녀돌보기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동시행동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을 양육행동으로 본다면 자녀와 함께한 집안청소나 구매활동, 가족의 여가활동도 자녀양육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 Craig (2006)는 자녀양육행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자녀돌보기 시간을 일반적인 자녀돌보기를 구성하는 행동에 보내는 시간,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자녀돌보기 시간, 자녀와 함께 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Dermott(2008)는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시간을 자녀를 직접 돌본 시간(direct caring for children), 자녀와 상호작용한 시간(interactive childcare) 뿐 아니라 가족과 보낸 시간(family time), 가사노동과 같은 다른 활동 중에 함께한 시간, 자녀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같이 있었던 시간(being there)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Mullan과 Craig(2009)는 자녀에 대한 근접성(proximity)과

책임(responsibility)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돌보기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특정한 돌보기활동만 자녀양육시간으로 측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을 자녀양육시간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Sayer(2010)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미국 시간자료를 통합한 시간연구에서 기혼여성의 2%가 배우자와 함께, 69%가 자녀와 함께, 18%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자녀돌보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남성은 2%가 배우자와 함께, 39%가 자녀와 함께, 26%가 배우자 및 자녀와 자녀돌보기를 공유하였다고 보고하여, 자녀양육이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라는 일대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녀양육행동이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자녀양육을 부모가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자녀양육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자녀양육시간의 측정을 어렵게 하고 부부가 자녀양육시간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게 하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2.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연구에서 실증적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이기영·이승미, 1994; 허경옥, 1994b, 1997; 조미환·임정빈, 1997; 유소이·최윤지, 2002; 이연숙 외, 2002; 한지수, 2003; 손문금, 2005; 허수연, 2008; 송유진, 2011; Bryant & Cathleen, 1996; Bryant & Zick, 1996; Bradbury, 2004; Bianchi et al., 2006; Craig, 2006; Adams & Buehler, 2007; Mullan & Craig, 2009; Altintas, 2011).

한편 자녀를 돌보는 활동 영역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데, 돌보기와 놀아주기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Lamb의 연구(1981)에 의하면 15~24개월된 유아의 어머니는 돌봐주기 위해 아이를 안아주었으나 아버지는 놀기 위해서 아이를 안아준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 함께 TV 시청하기, 과제 도와주기, 소풍 및 야유회 가기 등 좀 더 자유롭고 즐거우며 여가활용에 적당한 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 목욕시키기, 기저귀갈기, 우유먹이기와 같은 기본적인 육체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손문금(2005)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무급노동시간은 매우 적지만 그 중 미취학아이에게 책읽어주기와 놀아주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어머니는 미취학아이의 신체적 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화(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중의 경우 훈육과 관련되고 주말의 경우 여가생활, 학업지원, 훈육, 일상생활과 관련되며, 아버지와 접촉이 지속적인 청소년이 아버지와 여가생활, 일상생활, 정보제공, 훈육 영역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성 및 놀이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와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와 신체적인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된 자녀양육활동은 시간을 융통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주말에 주로 행해지는 여가 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주된 자녀양육활동인 매일매일 행해져야하는 반복적이고 비사회적인 활동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이 의무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아버지에게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반(半)여가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이승미, 1997).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양육활동의 특성 차이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은 여가시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배우자나 다른 가족원이 함께할 때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녀양육시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은 지금까지 자녀양육시간으로 측정되어 온 주행동의 자녀돌보기시간 뿐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자녀돌보기시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며,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함께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시간과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영향요인

1)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이론적 관점

생활시간 배분현상의 설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간배분이론은 Becker(1965)가 경제이론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생산주체인 가계가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분한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시간배분이론에서 파생되어 발전한 경제적 효율성 가설(economic efficiency hypothesis)은 어떤 일의 시간소비량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하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정의되어진다. 가족구성원이 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량은 가족전체의 최고 효용을 얻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또는 성과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내에서의 효율성, 즉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되어져왔다. 이 관점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가정 내에서의 노동보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가정되며,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임금이 어머니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아버지는 시장노동에,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전문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시장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비시장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여성들이 시장노동에의 참여를 더 선호하게 됨으로써, 임금의 비교우위에 의한 전통적인 전문화 경향이 약화되는 실정이다.

수요 및 실행가능성 가설(demand capability hypothesis)은 Coverman(1985)이 이용가능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소비한다는 이용가능시간 가설(time availability)의 기본전제(Berk, 1985; Model, 1981)에 가사노동의 요구 또는 수요와의 접근을 통합한 가설로서, 가사노동의 수요과 실행가능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정 내의 상이한 환경조건과 상황으로 시간배분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수요는 어린 자녀의 수 또는 총자녀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돌봄노동이 발생하게 되고, 부인의 취업은 남편에게는 양육수요의 증가이며 부인자신에게는 이용가능한 시간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제된다. 수요 및 실행가능성 관점에서 이용가능시간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태 또는 주당노동시간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취업상태는 대부분 전업취업상태이며 주당노동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융통성의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높고 자녀양육에 관해서 유연한 자세나 이해를 해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

이 증가한다고 본다(Nock & Kingston, 1988).

앞서 설명한 가설들이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을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데 반해, 여성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체계에 기초한 성차에 의해 부모의 자녀양육역할 분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할관념가설(role attitude hypothesis)은 의식적 사고나 태도, 특히 성에 따른 부모의 역할, 부인의 취업이나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가치관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시간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역할관념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일수록 자녀양육 참여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상의 가설들은 주로 임금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을 설명하거나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가사노동분담의 공평성을 논의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으며, 자녀양육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다루어왔다(이기영 외, 1994; 문숙재 외, 1997;조미환 외, 1997; 이연숙 외, 2002; 채로 외, 2004; 손문금, 2005; 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Greenstein, 1996). 자녀양육은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활동이지만, 활동의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즉 가사노동은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면서도 노동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 반해, 자녀양육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1]와 양육활동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가사노동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자녀양육시간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녀양육은 가사노동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남성과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장미혜, 2005),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사노동시간보다 자녀양육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자영, 2010). Robinson과 Goodbey(1999)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부모들이 수입노동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0년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Bianchi와 동료들(2006)은 196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양육을 가사노동과 동일시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부모의 자녀양육 시간 사용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양육시간을 인적자본 증대를 위한 시간자원의 투자로 보는 인적자본론적 관점(human capital perspective)은 자녀양육시간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적자본론은 Shultz, Mincer, Becker 등에 의해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이다. 인적자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및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정보능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을 지칭하며, 일반적인 정규교육, 특수교육 및 훈련,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및 서비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이주 등과 같이 여러 형태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인적자본은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정의 기능을 통해서 개발되므로 개인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의 자원소비를 기초로 할 때 시간투자와 금전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문숙재 ·김성희, 1996),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은 부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효용증대를 위한 것만이

1) 자녀가치는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대가라 정의할 수 있으며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함께 병존한다. 자녀의 긍정적 가치는 정서적 만족감, 경제적 이득과 안정. 자기 풍요화와 발전, 자녀와의 동일시, 가족의 응집성과 연속성을 들 수 있고, 부정적 가치는 자녀양육에 다른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 자녀로 인한 부부갈등 등을 들 수 있다(김은설·최혜선, 2008)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는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한 시간 뿐 아니라 자녀로 인해 간접적으로 증가된 시간이 모두 포함되며(Bryant & Cathleen,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를 위해 수행한 가사노동과 여가 또한 자녀양육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시간사용의 선택에 있어 어떤 활동에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의 우선순위에는 자신의 가치나 목표가 반영되기도 하고 역할이 반영되기도 한다(한지수, 2003).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자인 부모의 시간배분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와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양육시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금노동시간

임금노동시간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획득의 원천이 되는 시간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근로계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사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하루의 시간사용은 임금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쳐 근로시간이 길수록 자녀양육시간이 감소된다는 결과들(Coverman, 1985; Coverman & Sheley, 1986; 조미환·임정빈, 1997; 허경옥, 1997)이 보고되고 있다. 이숙현(1995)의 연구에서 35세 이하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주당근무시간이 48-58시간이고 평균 근로시간이 56.4시간이나 되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채화영(2012)의 연구에서도 장시간 근무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감이 주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소득은 시장노동과 자녀양육에의 시간배분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자녀양육에의 시간을 더 적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부간의 상대적인 소득의 차이로 인해 자녀양육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Kooreman과 Kepteyn(2007)의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자녀돌보기시간이 증가하고 부인의 소득은 자신과 남편의 자녀돌보기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아버지 자신의 소득은 남성에게 보다 큰 자원으로 인식됨으로써 가족역할, 부모역할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장미나, 1994),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김미란, 1985; 박문학, 1989)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허경옥(1994a)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자신의 임금률은 자녀양육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머니의 임금률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소득과 관련된 변수가 자녀양육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3)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나타나는 지표로서 인적자본의 세대간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Borra & Sevilla-Sanz, 2011),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주중보

다 주말의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at al, 2011). Gracia와 Gonnzalez-Sancho(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부모 모두의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며,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라는 연구결과(Gimenez-Nadal & Molina, 2011)도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는 결과(위영희, 1980; 김미영, 1984; 김미란, 1985; 허경옥, 1995; 이성희·한은주, 1998; 이영미 외, 2006; 송유진, 2011)가 많으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참여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이행옥, 1988; 전효숙, 1990)도 있다.

(4) 아버지의 연령

국내연구(김미영, 1984; 윤종희 외, 1993; 허경옥, 1997; 이성희 외, 1998)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양미경(1996)은 연령이 젊은 아버지들이 직업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적다고 하였으며, 위영희(198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발달 및 성에 대한 지도, 유익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의 전달 등에 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역할에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과 자녀양육참여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이희숙, 1984; 김미란, 1985; 박문학, 1989)도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아버지의 직업

장미나(1994)의 연구에서 전문직 아버지는 다른 직종에 비해 보다 높은 아버지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낮은 수행정도를 나타냈으며, 이성희와 한은주(1998)의 연구에서 전문직에서 보다 높은 아버지역할행동 수행이 나타나 직업의 지위가 안정적인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경우 주중에 더 많은 자녀양육시간을 보낸다(Seo et al, 2011)는 연구결과도 있다.

(6)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역할관념가설의 관점에서 자녀양육시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양성적이거나 여성적 성격 특성을 가지거나 성역할행동이 덜 구분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mb, 1981; 이희숙, 1984; 김미란, 1985; 이행옥, 1988; 박문학, 1989; 한경혜, 1995), 평등의식이 강한 남성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stein, 1996). 그러나 역할관념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Maret & Finlay, 1984; 허경옥, 1994a).

한편,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관해 배우자인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다.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남편의 양육적인 역할을 제한하고 통제하며(Roberts, 1996),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siglio, 1991; Thomason & Walker, 1989).

부인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할 때 남편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Simons et al., 1990)는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부인의 취업여부

부인의 취업은 수요 및 실행가능성 가설에서 볼 때 부인의 실행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키는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키기보다 부인자신의 자녀양육시간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거나(Maret & Finlay, 1984),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k, 1985; Coverman & Sheley, 1986; Shelton, 1990 ; Seo et al, 2011). 국내연구에서도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이연숙 외, 2002)보다 부인의 취업여부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이행옥, 1988; 박문학, 1989; 윤종희 외, 1993; 고선주·옥선화, 1994; 이영미 외, 2006)가 많았다.

오히려 일부 연구(강란혜, 1990; 전춘애·박성연, 1996)에서는 취업모의 남편이 비취업모의 남편보다 자녀양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지지, 특히 시모와 친정모의 지지가 많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8) 자녀 구성

자녀의 수와 연령은 자녀양육시간의 수요로 작용하는 요인이며,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율이 높았으나(Marsiglio, 1991; 허경옥, 1995; 이성희 외, 1998; 강란혜, 2000; 유소이·최윤지, 2002), 허경옥(1994a)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아버지의 양육시간이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또한 김수정과 김은지(2007)의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과 관련하여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Marsiglio(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성희와 한은주(199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역할행동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양호(1998)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trohschein, Gauthier, Campbell과 Kleparchuk(2008)은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가정내 이용가능한 자원(부모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1인에게 돌아가는 자원의 양이 감소할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도 변화가 생겨 긍정적 상호작용활동(positive interacion)은 감소하고 일상적 자녀돌보기행동(consistent parenting)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9) 가족형태

김미란(1985)의 연구에서 확대가족 형태의 아버지보다 핵가족 형태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의 역할수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경혜(2005)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미숙, 조병은과 강란혜(2004)의 연구에서 조모는 취업모가족의 손자녀에 대한 대리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의 존재가 취업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아버지

의 자녀돌보기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에서 분석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자녀양육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우선 원자료와 별도로 제공되는 가구원 데이타로부터 동일한 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연구모형에 제시된 배우자관련 변수를 포함하기 위해 아버지와 배우자를 매칭시켰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모두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간일지 2개 중 1개의 자료만을 추출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A그룹(금, 토), B그룹(일, 월), C그룹(화, 수), D그룹(목, 금), E그룹(토, 일)의 5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평일과 일요일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B그룹의 일요일 자료와 E그룹의 일요일 자료를 추출하고 나머지 그룹은 조사 첫째날의 자료를 추출하여 평일의 시간일지로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선정하였으며,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농가는 제외하였다. 미성년인 만 17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아버지로 선정한 이유는 자녀의 연령과 취학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시간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편부가정이나 이혼가정, 또는 주말가정 등과 같이 특이한 가족구조의 아버지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조의 아버지와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참여한 8,090가구, 20,263명(40,526개 시간일지)중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는 모두 2,693명이며, 평일 1,617명(60.0%), 일요일 1,076명(40.0%)의 시간일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2) 자녀양육시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시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측정하기 위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양육시간을 자녀돌보기시간과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자녀돌보기시간은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자녀양육활동을 수행한 시간이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공유한 시간은 아버지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자녀돌보기시간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활동에 사용된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공유시간은 "주행동"을 "자녀"와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때 주행동으로는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이 포함된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은 모든 생활시간활동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공유시간을 측정하였다. 한편, 자녀공유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 '함께한 사람'으로서의 '자녀'는 '미취학자녀'와 '배우자와 미취학자녀를 제외한 그 외 가족 친척'이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빈도(%)

변수	구분		변수	구분	
아버지의 연령	20대	84(3.1)	배우자의 연령	20대	197(7.3)
	30대	973(36.1)		30대	1318(49.0)
	40대	1432(53.2)		40대	1113(41.3)
	50대이상	204(7.6)		50대이상	65(2.4)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6(3.9)	배우자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30(4.8)
	고졸이하	1118(41.5)		고졸이하	1403(52.1)
	대졸이하	1279(47.5)		대졸이하	1083(40.2)
	대학원이상	190(7.1)		대학원이상	76(2.8)
아버지의 직업	관리직	199(7.4)	배우자의 직업	관리전문직	328(12.2)
	전문직	496(18.4)		사무직	288(10.7)
	사무직	490(18.2)		서비스·판매직	498(18.5)
	서비스·판매직	408(15.2)		농림·기능·단순노무직	317(11.8)
	농림·기능·단순노무직	988(36.7)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없음	1366(50.7)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1(6.7)		100만원미만	570(21.1)
	200만원미만	734(27.2)		200만원미만	504(18.7)
	300만원미만	914(34.0)		300만원미만	147(5.4)
	400만원미만	489(18.2)		400만원미만	76(2.9)
	400만원이상	375(14.0)		400만원이상	30(1.2)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전통적	1369(50.8)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전통적	865(32.1)
	근대적	1324(49.2)		근대적	1828(67.9)
자녀수	1명	736(27.3)	첫자녀 연령	0-3세	374(13.9)
	2명	1636(60.8)		4-6세	306(11.4)
	3명	306(11.4)		7-12세	785(29.1)
	4명이상	15(0.6)		13-17세	946(35.1)
미취학 자녀수	없음	1673(62.1)		18세이상	282(10.5)
	1명	719(26.7)	막내 자녀연령	0-3세	668(24.8)
	2명이상	301(11.2)		4-6세	399(14.8)
조부모 동거	동거함	204(7.6)		7-12세	946(35.1)
	동거안함	2489(92.4)		13-17세	680(25.3)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함께한 사람'은 혼자, 배우자, 미취학자녀, 배우자와 미취학자녀를 제외한 그 외 가족 친척, 가족외 기타의 다섯가지 범주로 조사되었다. 취학자녀는 배우자와 미취학자녀를 제외한 그 외 가족 친척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학자녀외의 가족 친척이 포함될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대 가족의 특성상 아버지가 생활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

〈표 2〉 자녀양육시간의 구성

	활 동 내 용	주행동	동시행동	함께한 사람
자녀 돌보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o	o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o	o	
가사공유	가정관리	o		자녀
	가족보살피기[2]	o		
여가공유	교제 및 여가	o		자녀

이외일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함께한 사람으로 취학자녀를 모두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한 시간 중에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활동을 함께한 시간을 가사공유시간으로 명명하였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함께한 시간을 여가공유시간으로 명명하였다. 공유시간을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으로 구분한 것은 두 가지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시간과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6.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시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시간의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한 행위자율이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특히 동시행동의 경우 행위자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여가시간과 더불어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녀양육시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자녀양육활동별 행위자비율을 참여율로, 행위자평균시간을 참여자평균시간으로 명명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양육시간을 구성하는 자녀돌보기, 가사공유, 여가공유에의 참여여부이며,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아버지특성요인으로 아버지의 노동시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가 포함되었고, 배우자특성요인으로 배우자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가 포함되었으며, 가족특성요인으로 자녀의 수, 막내자녀의 연령, 조부모 동거여부가 포함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 경향

본 연구는 자녀양육시간의 확대된 개념을 적용하여 자녀돌보기시간과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활동별로 평균시간과 참여율, 참여자평균시간을 살펴보았다.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자녀돌보기의 미취학아이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는 자녀를 대상으로 행해진 활동으로 돌보기의 대상인 자녀는 함께한 사람이 아니며, 가사공유시간의 가족보살피기는 자녀와 함께 다른 가족원을 보살핀 활동이 해당됨.

〈표 3〉 자녀돌보기의 평균시간, 참여율, 참여자평균시간

(분, %)

자녀돌보기		평일 (N:1617)						일요일 (N:1076)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주	동시	주	동시	주	동시	주	동시	주	동시	주	동시
미취학 아이 보살 피기	신체적 돌보기	4.0	0.5	11.0	2.0	36.3	23.1	8.4	1.9	16.2	4.5	51.8	42.1
	공부봐주기, 책읽어주기	1.2	0.0	2.9	0.0	39.8	-	1.9	0.0	5.2	0.1	37.1	10.0
	놀아주기	6.4	0.3	13.7	0.9	46.7	37.1	13.2	1.2	20.4	2.2	64.7	55.0
	미취학아이 간호	0.4	0.0	1.0	0.1	37.5	20.0	0.3	0.0	0.7	0.0	40.0	-
	기타 보살피기	0.9	0.7	3.7	1.7	24.0	41.9	1.4	1.5	3.1	2.9	46.1	51.3
	계	12.8	1.5	21.5	4.2	59.7	35.4	25.2	4.6	27.1	8.4	92.9	54.9
초·중 고등학생 보살 피기	씻기기,등하교 도와주기	1.1	0.0	5.9	0.1	18.4	10.0	1.4	0.0	5.7	0.1	20.2	10.0
	숙제 및 공부 봐주기	2.2	0.0	5.1	0.0	42.9	-	4.1	0.0	8.5	0.0	48.2	-
	선생님과 상담, 학교방문	0.2	0.0	0.3	0.0	58.0	-	0.1	0.0	0.1	0.0	60.0	-
	초·중·고등학생 간호	0.2	0.0	0.5	0.0	35.0	-	0.6	0.0	0.4	0.0	157.5 3)	-
	기타 보살피기	0.6	0.0	3.8	0.0	16.3	-	1.1	0.0	3.6	0.3	29.0	50.0
	계	4.3	0.0	13.5	0.1	31.6	10.0	6.9	0.1	15.2	0.4	45.4	40.0
총계		17.1	1.5	33.0	4.3	51.8	35.2	32.1	4.7	40.0	8.7	80.4	54.3

1) 자녀돌보기시간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시간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를 "주행동"으로 행한 주자녀보살피기시간(primary childcare time)과 "동시행동"으로 행한 동시자녀보살피기시간(secondary childcare time)을 측정한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시간-주행동, 동시행동 포함-의 경향은 <표 3>과 같다. 먼저 주행동의 경우 아버지의 평일 평균 자녀돌보기시간은 17분. 참여율은 33.0%, 참여자 평균시간은 52분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는 평균 32분, 참여율은 40.0%, 참여자평균시간은 80분으로 나타나 평일보다 평균시간, 참여율, 참여평균시간 모두 증가하였다.

자녀돌보기활동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아이보살피기의 경우 평일 평균 13분, 참여율은 21.5%, 참여자 평균시간은 60분정도이며, 일요일의 경우 평균 25분, 참여율은 27.1%, 참여자 평균시간은 93분정도였다. 연구대상자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비율이 37.9%인 점을 고려할 때 평일에는 미취학자녀 아버지의 56.7%, 일요일에는 71.5%가 미취학자녀를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보살피기의 각 활동을 살펴보면, 평균시간,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모두 놀아주기 활동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돌보기활동에서 높게 나타나 앞서 논의한 아버지의 자녀양육활동의 특성이 본 분석결과에서도 입증

3) 간호활동에 참여한 아버지는 4명이며, 간호활동이 자녀가 아픈 경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평균시간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가사공유의 평균시간, 참여율, 참여자평균시간

(분, %)

가사공유		평일 (N:1617)			일요일 (N:1076)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가정 관리	음식준비 및 관리	0.3	1.2	23.2	0.9	3.0	29.7
	의류 관리	0.0	0.0	-	0.1	0.0	-
	청소 및 정리	0.2	0.9	20.7	1.3	3.3	39.7
	집 관리	0.1	0.4	17.1	1.3	3.1	40.9
	물품구입	0.6	1.4	45.9	8.5	14.8	57.4
	가정경영	0.1	0.0	-	0.0	0.4	22.5
	계	1.2	3.6	33.2	12.0	20.7	57.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4	0.9	49.3	1.1	2.4	47.3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3	0.8	33.1	0.6	1.7	37.8
	기타가족보살피기	0.2	0.2	103.3	2.3	2.4	93.5
	계	0.9	1.8	49.3	4.0	6.0	66.8
총계		2.1	5.2	40.4	16.0	24.4	65.4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의 경우 평일 평균 4분, 일요일 평균 7분이며, 참여율은 평일 13.5%, 일요일 15.2%로 미취학자녀돌보기에 비해 평균시간과 참여율이 훨씬 낮았다. 이는 미취학아이가 초·중·고등학생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활동을 보면, 씻기기·등하교도와주기, 숙제 및 공부봐주기 활동의 참여율이 다른 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 미취학자녀돌보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은 미취학자녀와는 놀아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학자녀와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활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활동으로서의 자녀돌보기시간의 경향을 보면 자녀돌보기의 모든 활동에서 평균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활동으로 자녀돌보기활동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볼 때 자녀에게 보다 집중하여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녀양육이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보고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 동시행동으로 행해진 자녀양육시간을 시간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아버지들이 자녀돌보기를 동시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기보다 시간일지를 기입할 때 동시행동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2) 가사공유시간

가사공유시간은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자녀와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평일 2분, 일요일 16분이며, 참여율은 평일 5.2%에서 일요일 24.4%로 증가하고

참여자평균시간도 평일 40분에서 일요일 65분으로 증가하였다.

가사노동활동에 포함되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모두 평일보다 일요일에 참여율과 참여자평균시간이 증가하며, 가정관리공유에의 참여율이 가족보살피기공유에의 참여율보다 높으나 참여자평균시간은 가족보살피기가 가정관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활동으로 볼 때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가정관리 중 물품구입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참여율 또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일요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버지가 가사노동 중 물품구입활동을 일요일에 행하고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물품구입활동이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가족여가의 성격을 띠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3) 여가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은 아버지가 여가활동을 할 때 자녀와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아버지의 여가공유시간은 평일 평균 23분, 일요일 평균 113분으로 평일보다 일요일에 자녀와 여가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참여율이 평일 36.5%, 일요일 74.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혼자 즐기는 여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이며 특히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들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의 활동은 미디어 이용으로 평일에 23.6%, 일요일에는 56.5%의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이용은 여가활동 중에서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4] 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공유활동 중 미디어이용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여가공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교제활동을 자녀와 함께하는 비율이 평일 15.7%, 일요일 34.7%로 나타난 것은 여가활동 중 다른 활동의 참여율이 미미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참여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제활동에 포함되는 활동내용에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족모임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활동 중 스포츠 및 레져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활동, 취미 및 기타활동과 같이 적극적 여가의 성격을 띠는 활동의 참여율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져활동을 자녀와 함께하는 비율은 평일 1.5%에서 일요일 13.0%로 증가하였으며, 취미 및 기타활동은 평일 1.3%에서 일요일 7.2%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내는 시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양육시간 중에서도 자녀돌보기시간의 증가보다 여가공유시간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돌보기시간은 평일 19분에서 일요일 37분으로 증가하고, 여가공유시간은 평일 23분에

4) Othner(1975)는 여가활동을 공유활동(joint activity),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 개별활동(individual activity)로 구분하였는데, 공유활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여가를 함께하는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병행활동은 여가를 함께하는 집단의 상호작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개별활동은 혼자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표 5〉 여가공유의 평균시간, 참여율, 참여자평균시간

(분, %)

여가공유	평일 (N:1617)			일요일 (N:1076)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
교제활동	5.8	15.7	36.9	26.2	34.7	75.5
일반인의 학습	0.0	0.1	-	0.0	0.0	-
미디어 이용	15.1	23.6	64.0	63.2	56.5	111.8
종교 활동	0.3	0.5	55.0	4.7	4.3	109.8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2	0.2	86.7	1.8	1.6	113.5
스포츠 및 레져 활동	1.0	1.5	65.2	13.0	13.0	100.0
취미 및 그 외 여가	0.7	1.3	51.0	3.9	7.2	54.0
계	23.0	36.5	63.1	112.7	74.4	151.4

서 일요일 113분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돌보기시간의 참여율이 평일 33.9%에서 40.9%로 증가하는데 비해 여가공유시간의 참여율은 평일 36.5%에서 74.4%로 증가하였다.

2.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양육시간을 구성하는 자녀돌보기, 가사공유, 여가공유에의 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돌보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의 자녀돌보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돌보기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 아버지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막내자녀의 연령이 유의하였으며, 일요일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 아버지의 교육수준, 막내자녀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요인의 영향을 보면, 노동시간과 교육수준이 평일과 일요일 모두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자녀돌보기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앞서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장시간의 노동시간이 제약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에 비해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직접적인 자녀돌보기에 더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 특성요인인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은 배우자의 취업여부와 임금률의 영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버지가 자녀돌보기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자신의 임금률보다 배우자의 임금률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허경옥(1994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은 일요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표 6〉 자녀돌보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평일		일요일	
		B	Exp(B)	B	Exp(B)
아버지의 노동시간		-.002***	.998	-.003***	.997
아버지의 직업 (기준:사무직)	관리전문직	.256	1.292	.034	1.034
	서비스판매직	.132	1.142	-.159	.853
	농림기능노무	.092	1.097	.114	1.121
아버지의 연령		-.021	.979	-.029	.971
아버지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356	1.427	.034	1.035
	대졸	.085	1.089	.465*	1.592
	대학원	.780**	2.182	.501	1.650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058	.944	.042	1.043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082	1.086	.019	1.019
배우자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152	.859	-.212	.809
	대졸	-.200	.818	.088	1.092
	대학원	.078	1.081	.070	1.072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086**	1.090	-.016	.984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015	.985	.011	1.011
자녀수		-.160	.852	-.204	.815
막내자녀연령 (기준:7-12세)	0-3세	2.015***	7.504	2.636***	13.955
	4-6세	1.157***	3.180	1.860***	6.426
	13-17세	-.645**	.525	-1.037***	.355
조부모동거여부	동거함	.292	1.339	-.006	.994
상수항		.662	1.938	.135	1.145
-2 Log likelihood		1547.195		947.678	
Chi-square		413.378***		462.001***	

*p<.05, **<.01, ***<.001

임금률이 배우자의 취업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취업이 자녀양육시간에 제약을 주는 평일에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족특성 요인에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막내자녀의 연령은 초등학생 연령인 7-1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유아기인 0-3세, 아동기인 4-6세의 자녀들 둔 아버지의 자녀돌보기 참여확률이 높고, 중·고등학생의 연령인 13-17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참여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돌보기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의 존재가 자녀양육시간의 수요로 작용한다는 수요-실행가능성 가설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조부모 동거유무는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나 규범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표 7〉 가사공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평일		일요일	
		B	Exp(B)	B	Exp(B)
아버지의 노동시간		-.004***	.996	-.006***	.994
아버지의 직업 (기준:사무직)	관리전문직	-.123	.885	-.146	.864
	서비스판매직	.569	1.767	-.722*	.486
	농림기능노무	.734	2.084	.220	1.247
아버지의 연령		-.033	.967	.001	1.001
아버지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410	.664	-.503	.605
	대졸	.056	1.057	.222	1.249
	대학원	1.043	2.837	-.280	.756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057	.945	.078	1.081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054	.948	-.121	.886
배우자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704	.495	.060	1.062
	대졸	.373	1.452	.089	1.093
	대학원	.359	1.432	.163	1.177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070	1.072	.036	1.036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086	1.090	.125	1.133
자녀수		.268	1.307	-.029	.972
막내자녀연령 (기준:7-12세)	0-3세	.074	1.077	.479	1.614
	4-6세	.000	1.000	.614**	1.848
	13-17세	-.258	.773	-.638*	.528
조부모동거여부	동거함	.011	1.011	.261	1.298
상수항		-.997	.369	-1.551	.212
-2 Log likelihood		535.936		983.193	
Chi-square		63.558***		171.945***	

*p<.05, **<.01, ***<.001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2) 가사공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와 자녀의 가사공유시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평일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노동시간만 유의미한 하였으며, 일요일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 아버지의 직업, 막내자녀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영향요인별로 보면, 요일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공유에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는 분석결과는 아버지들의 노동시간이 동일한 조건인 경우 아버지의 가사공유참여율이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거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가사공유 참여율이 저조하고 아버지의 생활시간에서 가사노동시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일

요일의 가사공유참여에만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유형 중 사무직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직종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가사공유 참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요인인 막내자녀의 연령의 효과는 자녀돌보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연령인 7-1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기인 4-6세의 자녀들 둔 아버지의 참여확률이 높고, 중고등학생의 연령인 13-17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참여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아버지의 가사공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돌보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체로 일치하며 그 효과의 방향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직접적인 자녀돌보기활동이 가사노동으로 인식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이 돌봄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여가공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공유시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평일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 아버지의 직업, 자녀의 수, 막내자녀의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에는 노동시간과 막내자녀의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별로 분석결과를 보면, 아버지 개인적 특성요인인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자녀돌보기시간, 가사공유시간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와 여가시간을 함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전문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일 경우 사무직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장미나, 1994; 이성희 외, 1998)와 반대되는 결과로 자녀양육에 포함되는 활동이 서로 다르게 포함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족특성요인으로는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이 유의미하였다. 먼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평일의 여가공유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1명 증가할 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에 있어 자녀돌보기나 가사공유참여 보다는 여가를 함께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막내자녀의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평일에 막내자녀가 0-3세, 4-6세, 13-17세의 경우 막내자녀가 7-12세인 아버지보다 자녀와 여가활동을 공유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아버지 보다 자녀돌보기, 가사공유, 여가공유 모두에서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막내자녀가 미취학의 경우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자녀돌보기와 가사공유의 참여확률은 높고 여가공유의 참여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활동 역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일의 가사공유참여가 아버지의 노동시간 이외 다른 영향요인이 없는 것처럼, 일요일의 여가공유참여 또한 아버지의 노동시간과 막내자녀 연령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가사공유참여가 동질적인 것은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 자체가 적고 참여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이라면, 일요일의 여가공유참여가 동질적인 것은 이와 반대로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많고 참여율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자녀돌보기시간,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주행동으로 행해진

〈표 8〉 여가공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평일		일요일	
		B	Exp(B)	B	Exp(B)
아버지의 노동시간		-.002***	.998	-.004***	.996
아버지의 직업 (기준:사무직)	관리전문직	-.490**	.613	-.186	.831
	서비스판매직	-.539**	.583	-.094	.910
	농림기능노무	-.266	.767	.007	1.007
아버지의 연령		-.004	.996	-.039	.962
아버지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522	1.686	.212	1.236
	대졸	-.171	.843	-.089	.915
	대학원	-.146	.864	-.158	.854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025	.976	.013	1.013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043	.958	-.068	.934
배우자의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49	1.050	.000	.999
	대졸	-.173	.841	.237	1.267
	대학원	.084	1.088	-.010	.990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030	1.030	.039	1.040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080	.924	-.024	.976
자녀수		.194*	1.214	.150	1.162
막내자녀연령 (기준:7-12세)	0-3세	-.181	.834	-.517*	.597
	4-6세	-.064	.938	-.240	.787
	13-17세	-.402*	.669	-.283	.754
조부모동거여부	동거함	.288	1.333	.595	1.813
상수항		1.297	3.659	3.189	24.270
-2 Log likelihood		1928.397		1064.894	
Chi-square		82.779***		127.428***	

*p<.05, **<.01, ***<.001

자녀돌보기시간으로 파악하여 측정할 경우 아버지는 평일 평균 17분, 일요일 평균 32분을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자녀돌보기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가사공유시간과 여가공유시간을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아버지는 평일 44분, 일요일 166분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시간을 구성하는 시간 중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녀돌보기시간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공유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생활시간을 실제로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녀돌보기시간과 자녀와의 공유시간은 돌보기의 형태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를 할 때 이것이 자녀돌보기 중 놀아주기 활동을 수행한

것인지 아버지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한 것인지를 보고하는 것은 시간일지를 작성하는 아버지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시간을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가시간으로 인식할수록 자녀돌보기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녀돌보기시간에 비해 자녀와의 공유시간이 많은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아버지에게 있어 자녀양육이 자녀에게 행해지는 돌봄노동이라기보다 여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을 돌봄노동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갖고 있는 반(半)여가적 특성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과소측정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자녀돌보기시간,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 모두에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이 확대되려면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감소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가 융통성있는 노동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기업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정책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이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채화영, 2012).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과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부모권[5]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버지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시간이 제약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논외로 할 때, 본 연구에서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요구하는 가장 강한 수요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돌보기가 필요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아버지는 노동시간과 자녀의 연령과 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녀양육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취학자녀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설명하는데 수요 및 실행가능성 가설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월평균소득과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역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시간을 소득변수로 설명하는 경제적 효율성 가설이 본 연구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은 자녀양육 중 돌봄노동의 성격이 강한 자녀돌보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임금률이 가사노동 성격의 자녀돌보기 활동의 분담에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버지의 월평균소득은 평일과 일요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소득이 높은 아버지는 평일에는 자녀양육에 덜 참여하고 일요

5) 부모권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가정양립정책이란 노동의 주체인 부모의 노동권(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부모권(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윤홍식, 2006).

일에는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함께 측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아버지와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조부모 동거유무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나 규범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관념가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태도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서 자녀와 여가를 공유하는 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요일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일요일에 자녀와의 여가에 시간을 집중하는 것은 아버지가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가치와 시대에 따른 아버지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생활에 몰입하고 싶은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평일에는 직장생활에 몰입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채화영(2012)의 연구결과와 해석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가시간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 자녀 대신 신문이나 TV시청, 컴퓨터에 몰두한다면 자녀와의 친밀함을 경험할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자신의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녀와 함께하는 공유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공유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주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을 분류해내는데 있어 “자녀”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유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가사노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만 이용가능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공유는 모든 활동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시간 전체 행동분류에 모두 해당하는 영역에서 시간공유대상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자녀양육시간에 포함되는 자녀양육활동은 사회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간조사에서 자녀돌보기활동은 신체적돌보기와 놀아주기, 공부봐주기 등으로만 파악되어 현대의 부모에게 요구되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양육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교육을 계획하는 일, 자녀로 인해 참여해야하는 봉사활동 등 자녀양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양육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양육활동의 내용이 구분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확대된 자녀양육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간자료를 장기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자녀양육활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변화된 요구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의 자녀양육의 양상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성역할태

도 외에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자녀양육시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관, 교육관,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란혜(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3) 곽인숙·김영주·성미애·성영애·이수경·이승미·조성연·최연실(2013). 가족변화의 가정생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4) 고선주·옥선화(1994).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기 전이 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양육분담.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5.
5)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미영(1984). 아버지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8) 김양호(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10) 김희화(2005). 아버지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11) 문숙재·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 주부의 취업유무에 다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49-66.
12)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학회지 35(2), 345-358.
13) 박문학(1989).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녀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미니즘연구 5, 239-287.
15)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16)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17)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18) 윤자영(2010).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한국노동연구원.
19) 윤종희 · 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1-202.
20)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21)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22) 이미숙·조병은·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23)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

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자료집, 1-34.
24)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25) 이승미(1997). 가족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이연숙·이기영·김외숙·조희금·주인숙(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27) 이영미·민하영(2006). 아버지의 유아양육참여에 대한 가족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28) 이행옥(1988).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희숙(1984). 부모의 성역할유형과 자녀양육에서의 역할 및 수행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위영희(1980). 아동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장미혜(2005). 가족:계급과 성별 불평등의 또 다른 영역: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간 및 계급내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105-146.
33)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8.
34) 전효숙(1990).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조미환·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5(4), 369-386.
36) 조선화(1997).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179-203.
37)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38) 채화영(2012).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5(200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0)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자료집, 35-80.
41) 한경혜(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남성·가정·생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8차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45.
42) 한지수(2003). 부부의 시간사용유형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3) 허경옥(1994a).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44) 허경옥(1994b).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45) 허경옥(1995). 가족형태가 부의 자녀양육시간과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57-71.
46)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47)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48) Adamsons, K. & Buehler, C.(2007). Mothering versus fathering versus parenting : measurement equivalence in parenting measures. Parenting: Science an Practice, July-September, 271-303.
49) Altintas, E.(2011). Inequality in parental time

investment in the US. 33r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50)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51) Berk, S. F.(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 New York: Plenum Press.
52)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 A.(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53) Borra, C. & Sevilla-Sanz, A.(2011). Education and parental time investments in children: a cross-country analysis over time. 33rd Conference of the IATUR.
54) Bradbury, B.(2004). Using Time Use Data to Estimate the Full Costs of Children.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55) Bryant, W. K. & Cathleen, D, Z.(1996). "Are we investing less in the next generation? Historical trends in time spent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 365-392.
56) Br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57)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58)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59) Craig, L.(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and society, 20(2), 259-281.
60) Dermott, E.(2008). Intimate Fatherhood : a sociological analysis. Routledge.
61) Doucet, A.(2009). Dad and baby in the first year : Gendered responsibilities and embodi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78-98.
62) Fedick, C. B., Pacholok, S. & Gauthier, A. H.(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Parental time-Analysis of measure in a Canadian time us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67-87.
63) Greenstein, N. T.(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743-756.
64) Gimenez-Nadal, J. I. & Molina, J. A.(2011). Parents' education as determinant of educational childcare time. 33rd conference of IATUR.
65) Gracia, P. & Gonzalez-Sancho, C.(2011). Parental similarity in education and time with children in the UK. 33rd conference of IATUR.
66) Jacobs, J. A. & Gerson, K.(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국미애·김창연·나성은 역, 시간을 묻다; 노동사회와 젠더. 한울(2010).
67) Kooreman, P. & Kapteyn, A.(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223-249.
68) Lamb, M.E.(1981).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김광웅・박성연 역, 아버지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69) Larson, R. W., Gillman, S. A. & Richards, M. H.(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8-97.
70) Maret, E. & Finlay, B.(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71) Marsiglio, W.(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73-986.
72) Model, S.(1981). Housework by husbands :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225-237.
73) Mullan, K. & Craig, L.(2009). Harmonising extended measures of parental childcare in the time-diary surveys of four countries-Proximity versus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6(1), 48-72.
74) Nock, S. & Kingston, P. W.(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75) Roberts, P.(1996). Father's time. Psychology Today 29(3), 48-56.
76) Robinson, J. P. & Godbey, G.(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77) Sayer, L.(2010). Gender equality and time together for U.S. partnered parents. 32nd Conference of the IATUR.
78) Seo, J., Lee, K. & Kim, O.(2011). The determinants of fathers' child care time in Korea. 33r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79) Shelton, B. 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80) Simons, R., Whitbeck, L., Conger, R. & Melby, J.(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81) Strohschein, L., Gauthier, A., Campbell, R. & Kleparchuk, C.(2008). Parenting as a dynamic process : a test of the resource dilutio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670-683.
82) Thomason, L. & Walker, A.(1990).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7일